

#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의 불평등 현황과 한국의 개발 협력 과제

**오지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  
개발미시연구팀 부연구위원  
gyoh@kiep.go.kr

**이은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  
개발평가팀 부연구위원  
eslee@kiep.go.kr

**유애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  
개발미시연구팀 전문연구원  
ailayoo@kiep.go.kr

**박차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  
개발평가팀 전문연구원  
chamipark@kiep.go.kr

**이예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  
개발평가팀 연구원  
yrlee@kiep.go.kr



##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 주요 내용

- ▶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현황 파악 및 교육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변화한 교육 환경 속 한국의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불평등 완화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교육은 태생적 능력, 숙련도와 더불어 개인의 인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불평등 완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함.
  - 특히 팬데믹으로 평균 1년 이상의 학교 폐쇄라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 교육 중단 사태가 발생한 현시점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분석은 더욱 시급
- ▶ 국별 거시 및 미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악화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교육 단절 및 회복 실태는 매우 다면적인 상황
  - 평균적으로 2019년 이전 교육 수준이 낮았던 저소득층 또는 농촌지역 학생일수록 코로나19 방역기간 학교 폐쇄 중 학습활동 참여율이 저조
  - 팬데믹은 국가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친 것뿐 아니라 국가 내 그룹별(소득수준, 성별, 지역) 또는 이해관계자별(학생, 부모, 교사)로 다면적 영향을 미침.
- ▶ 본 보고서는 개발도상국의 변화된 교육 여건 속 포용적 회복을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 과제로 국가별 지원 차별화, 부모 및 교사의 역량 강화, 취약아동 대상 지원 활성화를 도출
  - 국가별 개발격차에 따라 지원 목적을 기본 교육 기반 강화와 교육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이원화하여 각 목적에 부합한 맞춤형 세부 협력내용 구상 필요
  - 교육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부모·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
  - 수원국 내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전반적 교육 기반 강화뿐 아니라 취약아동을 타기팅한 지원 확대 필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글로벌 불평등 위기는 경제·사회적 비용이 큰 만큼, 오랜 기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국제 사회의 꾸준한 완화 노력에도 여전히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며 다양한 형태로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빈곤, 소득 격차, 성별에 따른 노동력 차이,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등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이 심화됨.
  - 최근 물가상승, 기후 변화, 내전과 같은 복합위기로 불평등 악화 우려는 더욱 증폭
- 본 연구는 개인의 인적 자본을 형성하고 불평등 완화 및 예방에 핵심인 교육에 초점을 둠.
  - 교육은 노동경제학에서 태생적 능력, 숙련도와 함께 개인의 인적 자본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개인의 경제력 강화, 세대간 이동성 제고 등을 통해 불평등 완화 및 예방에 기여
  - 팬데믹으로 평균 1년 이상의 학교 폐쇄라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 교육 중단 사태가 발생한 현 시점에서 교육에 초점을 둔 심층분석은 더욱 시급
- 불평등 완화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팬데믹 후 개발도상국의 불평등 현황 및 회복 실태를 파악하고, 새로운 환경 속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국의 개발협력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전반적인 불평등 추이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불평등에 대한 이해 제고
  -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교육의 역할을 분석하고, 거시 데이터를 활용해 팬데믹 전부터 방역조치 기간까지의 교육 및 교육 불평등 수준 분석
  -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세계은행 HFPS 미시데이터 및 패널가구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정량 분석 및 현지조사를 통한 정성 분석을 통해 팬데믹이 교육 불평등에 미친 다차원적 영향 분석
  - 한국의 교육 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 및 특징을 파악하여 포용적 회복을 위한 향후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과제 제안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1) 국제사회의 불평등 추이 및 완화 노력

#### ① 불평등 추이

- 주요한 사회문재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불평등은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빈곤 인구가 증가하고 식량위기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 불평등 상황이 심화됨.
- [소득] 지니계수로 표현한 전 세계 소득 불평등도는 2000년 0.7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20년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2020년 기준 지니계수가 0.6을 기록하여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sup>1)</sup>
  - 국가간 소득 불평등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완화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확대되었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은 0.3포인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팬데믹으로 야기된 경기침체와 신흥국의 낮은 경제회복 속도 때문임.<sup>2)</sup>
  - 국가 내 불평등의 경우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심화되는 상황이었으며, 코로나19는 이를 더욱 악화시킴.
    - 세계은행은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흥국 및 저소득국의 국가 내 소득 불평등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0.3포인트 정도 국가 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분석<sup>3)</sup>
    -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 때문에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는 취약계층 등 개도국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손실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취약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국가 내 불평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1)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값 0.2~0.4는 상대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태, 0.4~0.5는 불평등이 높은 상황, 0.5 이상인 경우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본다(Tatar *et al.* 2022, "COVID-19 vaccin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p. 2).

2) World Bank, "Global Income Inequality and the COVID-19 pandemic in three chart"(검색일: 2023. 6. 23); World Bank(2022),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2*, pp. 177-178.

3) World Bank(2022), "Global Income Inequality and the COVID-19 pandemic in three chart," <https://blogs.worldbank.org/developmenttalk/global-income-inequality-and-covid-19-pandemic-three-charts>(검색일: 2023. 6. 23); World Bank (2022),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2*, p. 158.

- [보건] 국가와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경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보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의 차이와 보건 의료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은 건강상태의 불평등을 야기하며,<sup>4)</sup> 코로나19는 국가간 및 국가내 보건 불평 등 상황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 코로나19 전에도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건의료 인프라, 보건의료 인력 등 보건의료 역량 및 긴급 대응 역량에 큰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이는 만성질환 및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큰 차이를 발생시킴.
    - 개도국의 경우 보건지출에 대한 재정부담 및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접근 어려움, 적절한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보건 취약성으로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며 백신 불평등 상황에 직면
    - 백신 불평등은 노동시장 및 교육 복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보건 불평등이 노동 및 소득,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다방면으로 불평등을 악화할 우려가 있음.
  
- [교육] 개인 및 국가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특성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 및 성과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로 인해 저소득국의 학습기회 박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국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기대 교육년수와 평균 교육년수가 높게 나타나 교육 불평등이 존재
    - OECD 회원국의 기대 교육년수와 평균 교육년수는 16.5년, 12.3년인 데 반해 개발도상국은 12.3년, 7.5년, 최저개발국(LDC)은 10.2년, 5.2년을 기록<sup>5)</sup>
  - 국가 내에 존재하는 불평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줄어드는데, 국가의 소득수준이 낮아 질수록 불평등으로 인한 교육 기회 박탈 정도가 심화됨.
  - 소득수준은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국가와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높은 수학성적을 기록해 소득 불평등에 따라 교육 성과에 차이가 나타남.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는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학습 손실 및 학습능력 저해 정도에 차이가 있음.
    - 저소득국 및 하위 중소득국이 상위 중소득국이나 고소득국에 비해 학교 폐쇄로 인한 대면교육 단절 현상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sup>6)</sup>
    -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이전 저소득국 및 중소득국 학생 100명 중 학습부진을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수를 56명으로 예측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70명으로 추정함.<sup>7)</sup>
    - 저소득 국가는 인터넷 이용자가 적고 컴퓨터 보급률이 낮아 원격수업을 운영할 환경이 구축되지

4) WHO, "Health inequities and their causes," <https://www.who.int/news-room/facts-in-pictures/detail/health-inequities-and-their-causes>(검색일: 2023. 9. 27); OECD, "Health Inequalities," <https://www.oecd.org/health/inequalities-in-health.htm>(검색일: 2023. 9. 27).

5) UNDP(2022a),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p. 284.

6) UNICEF(2021), *Preventing a Lost Decade: Urgent Action to Reverse the Devastating Impact of COVID-19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pp. 19-20.

7) World Bank, "2021 Year in Review in 11 Charts: The Inequality Pandemic"(검색일: 2023. 6. 23).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학교가 폐쇄되는 동안 원격수업으로 대면수업을 대체할 수 없어 저소득국 학생의 학습 성과는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② 불평등 완화 노력 및 논의동향

- [성과] 지난 20년간 DAC 주요 공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하위 중소득국 지원에 집중하였으며, 코로나 19 이후 전체 ODA 대비 교육 ODA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사회의 총 지원 규모는 2002년 661억 원에서 2021년 1,549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ODA 총액의 80%가량이 하위 중소득국과 저소득국에 지원됨.
  - 교육 분야의 경우 전체 ODA 대비 비중이 코로나19 이전에 증가하고 있었으나 2021년 8.1%로 감소함.
- [논의동향] 국제사회는 SDGs 수립을 기점으로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으며, 코로나19로 저소득국 보건 위기가 심화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ODA의 역할이 강조됨.
  - 2019년 7월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정치포럼은 SDGs 달성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물로 불평등을 언급하며 사회경제적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함.
  - 2020년 11월 제52차 DAC 고위급회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 마련, 기후와 환경을 고려한 개발, 개발효과성 강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는 한편 코로나19 이후 여성, 청소년, 건강, 교육, 민간금융 등 취약계층 및 분야의 악화된 불평등에 주목함.
  - 주요 공여국은 코로나19 이후 ODA 전략을 수립하면서 성평등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한 불평등 해소를 전략 목표로 직접 명시하거나, SDGs의 전반적인 달성을 지원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음.

## 2) 국가별 교육 및 교육 불평등 수준

### ① 팬데믹 이전 교육 수준 및 격차

- [국가별 수준] 평균 학교 교육년수와 시험 점수를 기준으로 국가별 교육 수준을 추정한 결과, 지난 10년간 꾸준한 노력으로 교육 수준이 향상되는 성과가 있었음.
  - 2018년까지 평균 학교 교육기간은 꾸준히 증가하며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시험 점수는 그 증가폭이 작은 것으로 보아 교육의 질적 성장이 양적 확대보다 더딤.
- [국가 내 교육 격차] 평균 교육년수나 학교 등교율과 같은 교육의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국가 내 성별, 지역별(도시/농촌), 가구 소득별 교육 격차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오랜 기간 교육을 받았으며, 농촌보다 도시, 빈곤층보다 부유층의 등교율이 높음.

- 도농 및 남녀 간 교육격차는 국가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심각
- 국가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층의 등교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부유층보다 빈곤층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임.

## ② 팬데믹 방역조치 기간 중 개발도상국의 학습 활동

### ● 세계은행의 가구별 고빈도 전화설문조사(HFPS: High-Frequency Phone Surveys) 결과,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학습활동 참여 비율은 그 이전에 비해 감소했으며, 해당 기간의 학습활동은 주로 교사가 제공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코로나19 이전 자녀가 학교에 취학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전체 평균 82%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봉쇄기간 중 학습활동에 참여 중인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이 중 67%였음.
  - 특히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은 중동·북아프리카(45%)와 사하라이남(50%)으로 파악됨.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가구별 학습활동 방법으로는 교사가 제공한 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제출하는 방식이 55%로 가장 많았으며, 휴대폰 어플 이용 또한 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다만 남아메리카 지역은 교사와 대면수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비율이 60%,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휴대폰 어플 활용이 84%로 나타나는 등 학습활동 참여 방법은 지역마다 상이함.

### ● HFPS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전 자녀가 학교에 취학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코로나19 이후 학습활동에 참여한 학생이 있다고 답한 가구의 비율은 저소득국가에서 가장 낮았으며, 도시와 농촌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기간 중 학습 단절이 발생했으나 그 정도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 자녀가 학교에 취학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코로나19 이후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율은 저소득국가에서 47%로, 전체 평균 70%보다 현저히 낮음.
  - 특히 교사와의 대면수업(9%) 및 휴대폰 어플을 활용(7%)하여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소득국가에서 다른 소득계층 국가(각각 평균 47%, 42%)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
- 도시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학교에 취학한 학생이 있는 가구 비율은 78%였으며 이 중 73%가 코로나19 이후 학습활동에 참여했다고 답했으나, 농촌은 그 비율이 각각 51%, 41%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로 도농 간 교육 격차가 악화되었음을 시사
  - 도시에서는 교사와의 대면수업이 47%로 가장 높은 학습활동 방법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은 교사에게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이 31%로 가장 높았음.
  - 라디오나 휴대폰을 활용한 학습 또한 농촌(라디오 8%, 휴대폰 12%)보다 도시(라디오 20%, 휴대폰 41%)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됨.

### 3) 교육분야에 미친 팬데믹의 다차원적 영향

-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변화한 교육 환경을 다면적으로 이해하고자 두 국가(에티오피아, 캄보디아)에 대한 정량·정성적 심층 사례조사를 시행
  - 각 국가에 대한 정량적 실증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렬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상황별 팬데믹의 파급효과를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 학교 정상화 후 등교율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팬데믹이 교육의 양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학교 폐쇄 당시 상황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팬데믹의 다차원적 영향 분석
  - 사례 국가는 가구별 팬데믹 전·후 정보(소득수준, 자녀의 교육 활동 등)가 자세히 있어 정량 분석이 가능한 개발도상국 중 한국과의 협력 여부, 지역, 경제 수준, 팬데믹 이전 교육 수준 및 교육 격차, 코로나19 학교 폐쇄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에티오피아와 캄보디아는 한국의 중점 협력국이자 ODA 지원 규모가 크고 중점 협력 분야에 교육이 포함되는 대표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 국가
    - 또한 두 국가 모두 팬데믹 봉쇄기간 중 학교 폐쇄기간이 길어 팬데믹의 여파가 크고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팬데믹의 다면성을 분석하기 적절한 사례라고 판단

#### ① 학교 정상화 후 등교 실태

- 세계은행의 HFPS를 활용하여 학교 정상화 후 등교실태를 분석한 결과, 두 국가 모두 소득수준이 낮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구의 학생일수록 팬데믹 이후 학교가 정상화되었을 때 학교로 돌아올 확률이 낮음.
  - 가구별 경제적 상황이 다른 특징에 비해 더 중요하게 나타난 이유로 팬데믹이 초래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꼽을 수 있음.
- 캄보디아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비해 교육의 양적 타격은 적었으며, 이는 국가간 상황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예상
  - 상대적으로 개발수준이 높고 교육 기반이 강한 캄보디아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비해 팬데믹 전 평균 등교율이 높고, 팬데믹 이후 등교율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음.
  - 정성적 분석 결과를 감안하였을 때 두 국가의 팬데믹 후 등교 양상이 상이한 것은 국가별 상황(교육 역량, 경제 수준, 문화, 코로나19 대응 정책, 거버넌스) 차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파악



## ② 학교 폐쇄 당시 상황과 교육 환경의 변화

### ● 에티오피아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교육이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학생들이 바로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교육 공백이 컸던 것으로 파악됨.

-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폐쇄기간은 5개월 정도(2020년 3~10월, 방학 제외)였으나, 학교가 재개된 이후 정상수업이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며 학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 약 1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됨.
  - 학교가 완전 폐쇄되었던 5개월여 동안은 교육이 거의 중단된 상태였고,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부분적 정상화 기간을 포함한 1년 반 이상 교육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부분 정상화 기간 동안 정부 정책상 교실별 최대 수용인원 제한으로 시설과 교사가 부족하여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과 부정확한 소문,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여 등교하는 것을 꺼리는 가정도 많았음.
  - 팬데믹 동안 악화된 경제 상황과 소득 감소, 물가상승과 생활비·가사부담 급증 등으로 인해 어린 학생들에게도 교육보다 가사나 생계를 위한 노동이 우선이었음.
- 도시 지역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할 확률이 농촌 지역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도시 지역 빈곤층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더 컸기 때문으로 추정됨.
  - 봉쇄조치의 파급력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서 더 높았으며, 특히 소득활동이 중단된 영세 소매상, 일용직 노동자, 가사도우미, 청소부 등 도시 빈곤층 가정의 아이들이 큰 타격을 받음.
  - 농촌 지역에는 정부의 지원이 미치지 못한 곳이 많았으나, 학교와 마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백신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자발적 모금을 통한 저소득 가정 지원 등 공동체의 노력이 있었음.

### ● 캄보디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기간이 에티오피아보다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교 복귀율과 학습 단절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단, 비대면 교육의 질이나 전달 방식으로 인해 학생별 학습 손실은 불균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도시 지역 학교에서는 팬데믹으로 인해 중도 탈락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농촌 지역에서도 학생 수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일을 할 수 있는 중등 이상의 학생들은 가정형편에 따라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관찰됨.
- 캄보디아는 1차 학교 폐쇄 조치 단행 이후 다시 정상화된 시점이 에티오피아보다 빨랐으며, 2021년 3월 2차 학교 폐쇄 때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여 교육 단절을 최소화하였고, 이는 팬데믹 이후 학생들의 학교 복귀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
  - 학교 폐쇄 조치 직후 학생(학부모)과 연락망 구축, 대안교육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비대면 교육이 적극 추진되어 학생들의 학습 참여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음.

- 다만 대면교육의 양과 질에는 미치지 못하여 학생들의 학습 손실이 불가피했고,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되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아 학업성취도나 동기 부여 면에서 교육 격차가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학교 폐쇄 당시 두 나라 정부가 유사한 대체교육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실제 이행의 효과성에서 큰 차이가 있었으며, 정부의 지원 역량과 더불어 전기, 인터넷·모바일 접근성 등 인프라 여건이 대체교육 방식과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크게 좌우한 것으로 분석됨.

-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동제한 조치와 인쇄물 부족으로 학습자료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TV나 라디오,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은 정보 부족과 낮은 접근성으로 효과적이지 않았음.

- 학교 정상화 이후에도 교육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수요 급증, 신규 커리큘럼에 따른 교재 미비, 보충수업 역량 부족 등 당면한 문제가 많으나 등록금 동결 조치로 학교 재정은 더욱 어려운 상황임.

- 반면 캄보디아는 전기 보급률, 인터넷 및 모바일 사용자 수가 전 세계 평균 수준으로 높은 편으로, 학교 폐쇄기간 동안 SNS를 활용하여 학사 정보 및 학습자료 전달이 비교적 수월하였고, 점차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도 활성화될 수 있었음.

- 팬데믹 동안 캄보디아 정부의 교육보조금 지원, 빈곤층에 대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COVID-19 Cash Transfer Programme for IDPoor Households) 등 과감한 재정 투입과 다양한 부양책 실시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파악됨.

- 팬데믹의 영향으로 개도국의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정부의 교육 부문 투자 우선순위 인식에 따라 학습 손실 회복 정도와 향후 교육 불평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별·지역별로 팬데믹의 파장과 교육 여건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력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에티오피아와 같이 열악한 교육 환경의 저소득국은 기초학습 손실 만회를 위한 기초교육 기능 회복에 우선순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학습 격차뿐 아니라 디지털 격차 완화, ICT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활용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공통적으로 교육의 질 개선이 시급함. 학교 폐쇄와 비대면 교육으로 인한 기초학력 부족과 학습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더 효과적인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코로나19와 복합위기로 더 큰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대상으로 학습 격차 만회를 위한 다양한 양적, 질적 교육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3. 정책 제언

- [전반적 교육 분야 개발협력]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교육 여건 속 포용적 회복을 위해 학생의 학습격차 완화뿐 아니라 교사·부모의 역량 강화, 교육여건에 대한 인식 제고, 취약계층 지원 등 전반적 교육 분야 개발협력 지원이 필요함.
  - 팬데믹 봉쇄조치로 중단되었던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과 재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만회하기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현지 현황(status quo)에 맞도록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학생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및 활동 기회 제공이 동반될 필요가 있음.
  -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사와 부모의 역량 강화 필요(디지털 기술에 대한 역량을 포함)
  - 팬데믹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상황 악화 정도가 컸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환경의 전반적 지원이 시급하며, 디지털 교육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단기·장기적 지원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교육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정보 격차, 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다만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학습이 불가능한 학생을 위해 디지털 교육 외 대체 학습 및 교육 방법 지원(라디오 또는 TV 교육방송을 통한 교육 확대 등)을 동반하는 등 디지털 교육의 잠재적 불평 등 악화효과를 고려한 접근 필요
  
-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한국의 개발협력 성과 및 비교우위를 고려하였을 때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목적을 기본 교육기반 강화와 교육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목적별 세부과제를 [그림 1]과 같이 제안
  - 코로나19 이후 국가별 교육 기반 및 환경이 상이한 만큼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국가별 사업 내용을 차별화하고 현지 맞춤형 지원 제공 필요
    - 개발수준이 낮은 국가(저소득국)의 경우 기본 교육 기반 강화에 초점을 두는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수준이 높은 국가(중소득국)의 경우 교육의 디지털 기반 확충 및 강화를 목표로 지원 확대
  - 팬데믹은 교육의 양뿐 아니라 질적 수준에도 타격을 주었으므로 인력양성과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통한 교육 기반 강화와 교육의 사회적 역할 강화가 시급
    - 현재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ICT 인프라 지원과 더불어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 부모·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소프트 스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특히 부모 및 교사의 ICT 역량 강화가 인프라 지원과 동반될 필요가 있음.

- 팬데믹으로 취약계층이 더 큰 타격을 입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집중 공략 가능
  - 현재 한국의 교육 분야 ODA 사업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목적이므로, 취약계층을 타기팅한 지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기여 필요 **KIEP**

그림 1. 한국의 교육 분야 개발협력 목적과 과제

지원 목적			
한국의 개발협력 과제	기본 교육 기반 강화	⇨	교육의 디지털화 촉진
국가별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국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득국 중심</li> </ul>
교사·부모 역량강화 및 콘텐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부모) 대상 직업훈련(평생교육) 센터 구축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li> <li>- 효율적 보충수업을 위한 수업 자료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리터러시, 기술 기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li> <li>- 디지털 교육을 위한 교수법 및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li> </ul>
취약계층 지원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라디오·TV 활용 교육 시스템 구축</li> <li>- 수업참여 인센티브(급식, 식수, 교재지, 육아서비스, 등록금 면제 등) 제공</li> <li>-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li> <li>- (최빈층) 빈곤층 부모의 경제력 강화</li> <li>- (젠더) 지역사회 대상 젠더 교육, 성별 고정관념 없는 교재 개발, 여학생을 타기팅한 교육 사업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립/농촌지역 대상 인터넷망·전력망 구축, 무료 와이파이 설치</li> <li>- 취약아동 대상 디지털 기기(휴대폰, 태블릿 등) 지원</li> </ul>

자료: 오지영 외(2023).